

사목표어 / 가정의 해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 나무
햇순들 같구나.”(시편 128,2-3)



들빛 바로가기

그림. 성바로딸수도회 박향숙 수녀 | 출처. 바오로딸콘텐츠

제1독서 예레 20,10-13

제2독서 로마 5,12-15

복 음 마태 10,26-33

화답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0,26).”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렵고, 내 진짜 모습을 들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때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Steimer, 2002). 다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우리는 진실보다 안전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는 것보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예레 20,10)” 하며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계심을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마태 10,30-31).” 이 말씀은 하느님이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흔들림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

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마태 10,31).”

신앙인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느님의 시선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성심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 안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르셨습니다(마태 26,37-4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에만 묶이지 말고, 예수 성심과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오늘도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구회륜 대건안드레아 신부 / 매향 본당 주임

3. 혼인의 특성: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원주교구 교구 법원

“성당에서는 이혼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하고 나서, 죄인 취급 받는 것 같아 상처받아서 성당에 안 나가요.” “이혼하면서 힘들었는데, 왜 교회에서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마음 아픈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하는 겁니까?”

가톨릭 교회는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혼인의 끈을 “죽음”이 아닌 **이상 결코 풀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회 혼인의 특성을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 “**단일성**”(單一性) - 이어야만 합니다. 이 혼인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에 관한 교리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바리사이들은 모세가 이혼장을 써 줌으로써 이혼

을 가능케 했다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의 근본 정신을 적시합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참조: 마르 10, 8-9).

교구 법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 유대의 단일성**을 바탕으로, 신자들이 겪는 혼인 장애 상태를 해소합니다. 즉, 이전 혼인으로 겪은 상처를 지우고, 하느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이끄는 과정이 **혼인 무효 소송**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혼인인 성사혼, 관면혼, 자연혼의 유대(단일성)가 이전 혼인에 “매여”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무효화(해소)하여야** 합니다.

혼인	사회에서는 이혼이지만, 교회에서는 별거 상태 (이전 혼인의 유대가 남아있음)	재혼한 경우 (단일성 위배)
성사혼, 관면혼	재혼하지 않으면, 혼인 장애 상태(조당)는 아님	사례1 혼인무효소송
자연혼 비신자+비신자	재혼하지 않으면, 혼인 장애 상태(조당)는 아님	사례2 바오로 특전

■ 사례1 / 저(아네스)는 전 남편(요한)과 혼배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고 지금은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체를 못 모시니까?

■ 답변 / 현재 자매님께서서는 혼인장애가 아닙니다(별거 상태). 따라서, 영성체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매님께서 추후에 재혼을 하시게 될 경우, 반드시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사례2 / 저는 전 남편(비신자)과 **이혼을 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람인 베드로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베드로)은 초혼입니다

■ 답변 / 지금 현재 남편분은 혼인 유대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매님의 경우 이전 혼인으로 묶여 있는 유대를 풀어야 합니다. (비신자인 전 배우자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바오로 특전¹⁾**을 적용하여 전 혼인의 유대를 해소하시면 됩니다.

¹⁾ 신앙의 특전으로, 바오로 특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주보에 게재됩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신앙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교황의 모든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말씀을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교황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이며 최고 스승으로서 교리를 설명하고 옹호하기 때문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91항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사도들 위에 세우시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움으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을 통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유산을 보존하고 전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57항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사도를 당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마태 16,18-19; 요한 21,15-17 참조).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로마 주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온 교회의 목자입니다. 따라서 교황이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 무류성을 가집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91항 참조).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임무는 사도단에게도 맡겨졌고, 이 임무는 교황과 주교단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교단은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입니다. 각각의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교황과 유대를 보존하면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의견을 확정적으로 합의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보편(세계) 공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83, 884항 참조).

따라서 교황 또는 교황과 더불어 주교단이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91항 참조). 이러한 가르침에는 1854년 비오 9세 교황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이 선포한 ‘성모 승천 교리’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과 신경에는 없지만 교황이 정식으로 사도좌에서 선포한 교리이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믿을 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밖에 교황과 주교단이 비록 결정적 의사 표시 없이 일반적 교도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계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제시할 때에도 신자들은 ‘마음의 종교적 순종’(교회 헌장 25항 참조)으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발표하신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과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동의와는 구별되지만 신앙의 동의를 연장하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92항 참조).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 찬미 예수님!

학부 4학년 반곡동 성당 김동우 라파엘 신학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교구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음을 새삼 느낍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만큼,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를 감사드리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갯등 중창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갯등 중창단은 '고운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신학생들이 모여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수원신학교의 중창단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 성가를 즐겨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열렬한 팬으로서 갯등 중창단의 성가를 즐겨듣곤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저는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라는 성가를 좋아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의 말씀을 노랫말로 담은 이 성가를 들으면, 지금 저와 함께 성소의 여정을 걸어 나가고 있는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면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심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형제들과의 삶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있기에, 혼자였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신학 공부를 기쁘게 배우고, 매일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보며, 지치고 힘들 법도 한 신학교의 여러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함께 하는 형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과 매일 화목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신학교 밖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목함' 역시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고픈 마음이 크기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제자 공동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분명, 이전 년 전 예수님의 벗인 제자들도 저희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장난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호탕하게 웃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며 기쁜 추억을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였을 것이고 다투기도 하였을 것이며 그로 인해 예수님께 꾸지람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으로 푹푹 뭉쳤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은 훗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저희 형제들도 사랑으로 푹푹 뭉칩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저희 안에 머무르시고, 또 그분의 사랑이 저희 안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김동우 라파엘 신학생
/ 학부 4학년, 반곡동 본당

교구장 동정



6월 21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매포 성당)
 25일(목) 민족화해위원회 통일기원미사
 (원동 주교좌성당)
 28일(주일) 사목방문(덕산 성당)

축하드립니다

수품일 6월 22일(월) 장원용 신부
 영명일 6월 24일(수) 요한 세례자
 김진형, 백승치, 김민규, 이희선
 박승용, 박정원 신부

기억해드립니다



선종 57주기
 6월 27일(토)
 이 바드리시오 신부

2026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기도학교
유튜브 계정

- 신청형 피정(2박3일)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 피정비 : 비회원(1인실 20만원, 2인실 16만원) / 후원회원(1인실 14만원, 2인실 11만원)
- ▶ 피정 신청 및 문의 : 043-651-4563

날짜	강사	날짜	강사
7월 17일(금)~19일(주일)	김혜중 세례자요한 신부님, 춘천교구	10월16일(금)~18일(주일)	남창현 토마스아퀴나스 신부님, 서울대교구
8월 21일(금)~23일(주일)	옥현진 시몬 대주교님, 광주대교구	11월20일(금)~22일(주일)	허석훈 루카 신부님, 서울대교구
9월 18일(금)~20일(주일)	임병헌 베드로 신부님, 서울대교구	12월18일(금)~20일(주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원주교구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교구 알림

교구 1일피정

때 : 6월 23일(화) 10시~15시30분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주제 : 예수 성심, 우리를 비추는 빛!
 강사 : 이종훈 야고보 신부(부론주임)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성서사십주간

때 : 6월 23일(화) 가톨릭센터, 10시 202호
 구곡성당, 19시30분
 24일(수) 대화성당, 10시40분
 25일(목) 구곡성당, 11시
 무실동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성인복사단 교육

때 : 6월 24일(수) 13시~16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교육 내용 : 전례봉사자의 자세
 강사 : 성호영 다니엘 신부(복음화사목국장)
 대상 : 본당이나 공소에서 활동 중인 성인복사단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신임 교리교사 연수

때 : 6월 27일(토) 13시30분~28일(주일)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신임 교리교사 / 신임 연수 미이수 교리교사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노인단체 임원 피정

때 : 7월 2일(목) 14시~3일(금) 13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본당 남·여 노인단체 임원·봉사자, 어르신
 대학 담당자, 가정사목(노인사목) 담당자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목주, 필기도구 등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하반기 어르신대학 봉사자 연수

때 : 7월 16일(목) 13시30분~16시
 곳 : 가톨릭센터 202호
 대상 : 어르신대학봉사자, 어르신대학에 관심 있는 분
 준비물 : 개인컵, 미사준비
 참가비 : 10,000원
 신청 : 7월 8일(수)까지 F 033-765-4223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하계캠프

때 : 7월 24일(금)~26일(주일) / 2박 3일
 곳 : 대천 요나성당
 주제 :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루카 24, 17)
 대상 :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및 사제성소에
 관심있는 일반 청년

참가비 : 1인당 100,000원
 신청 : 7월 12일(주일)까지
 E-Mail : wjsemi@wjcatholic.or.kr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원주교구 청년대회(Pre-DID) 신청

Pre-DID 기간 : 7월 24일(금) 16시30분
 ~26일(주일) 13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교구 내 모든 청년
 참가비 : 4만원
 신청 : 7월 6일(월) 까지
 E-mail : wjyoung@wjcatholic.or.kr
 문의 : 청년·대학사목 033-766-4228

복사학교

때 : 7월 28일(화)~30일(목) / 2박 3일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주제 : "사람의 아들은 심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르 10,45)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남·여 복사 단원/
 복사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6학년(선착순 40명)
 참가비 : 1인 80,000원
 신청 : 7월 12일(주일)까지
 E-Mail : wjsemi@wjcatholic.or.kr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p>루카의 아침</p> <p>일본 나가사키 4일/5일, 홍콩 마카오 4일, 중국차주 4일/6일, 로마/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국내 성지순례 등 순례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본당 및 단체 성지순례 문의 환영합니다. 홍승현(루카) 010-4687-2314, 033-742-0819</p>	<p>명성인쇄 · 광고</p> <p>최경택(요아킴), 이안나(안나) 칼라인쇄 · 책자 · 봉투 · 기념품 광고 · 판촉물 · 팸플릿 · 카렌다 T.033-747-0373 교구청 뒤 중앙로24</p>	<p>세무사 이해경 사무소</p> <p>이해경(도마), 박영선(리디아) 기장대행·세금신고·이의신청 교구신자 무료 세무상담 T.033-743-0126 원주세무서 뒤</p>	<p>의료법인삼산의료재단 삼산병원</p> <p>박상기(스테파노) 병원(정형외과, 수술/비수술, 내과, 건강검진, MRI·CT·초음파·내시경) T.033-749-9900, 9917 원주시 혁신로 5</p>	
<p>연세치과</p> <p>윤석현(요셉) 임플란트, 잇몸치료, 충치치료 예약상담 : 033-733-7505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2층 마트주차장 무료이용</p>	<p>휴표흠침대 · 인까사</p> <p>금성침대 · 옥마루 흠침대</p> <p>송영범(이스도로), 민병욱(수산나) T.033-747-5757 만종가구단지 내</p>	<p>남부·밝은안과</p> <p>박찬(루카), 권혁연(프란치스코) 안중합검진, 노안, 사시 및 약시 안건조증, 눈물흘림, 눈꺼풀꺼짐 T.033-766-9100 남부시장 옆·세경아파트주차</p>	<p>주방가구·불박이장·드레스장</p> <p>싱크대 도어, 상판 리폼 고흥우(미카엘), 홍석례(미카엘라) T.010-6373-7379 고임주식회사(만종가구단지 내)</p>	<p>크리스마스 여행사 성지순례</p> <p>8.7~10 백두산 탐방 9.30~10.11 스페인 포르투갈 12.8~11 라방 성모 발현지 권영욱(마티아) 010-5485-0114</p>

미사·피정·연수

가톨릭 제약인회 월례미사

때 : 6월 24일(수) 18시
 곳 : 가톨릭 원주도서관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 6월 25일(목) 10시30분
 곳 : 원동 주교좌성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원주 성소후원회 미사

때 : 6월 25일(목) 10시30분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사회복지 서울후원회 감사미사

때 : 6월 25일(목) 14시 / 곳 : 명동성당 소성당
 문의 : 사회사목국 033-731-4557

원주시청 가톨릭공무원 성우회 월례미사

때 : 6월 25일(목) 19시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033-765-4222

MBW 교구 준비벤자 모임

때 : 6월 26일(금) 18시 / 곳 : 영월성당
 문의 : 033-372-3900

가톨릭 교사회 미사

때 : 6월 26일(금) 19시 / 곳 : 양업사제관
 대상 : 유·초·중·고 가톨릭신자 교사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연령회연합회 상반기 일일교육 간담회

때 : 6월 27일(토) 9시30분~13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성서부 예비봉사자 2차 교육

때 : 6월 27일(토)~28일(주일)
 곳 :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여성연합회 하계연수

때 : 6월 29일(월)~30일(화) 1박2일
 곳 : 마산 경남식품 견학 및 윤봉문 요셉 성지 방문
 대상 : 본당 성모회장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 6월 28일(주일) 12시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그레고리오성가와 함께하는 성음악 영성피정

때 : 7월 10일(금) 16시~12일(주일) 16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주제 : 그레고리오성가를 노래하며 주님의 기도 묵상
 강의 : 유충희 대철 베드로 신부
 지도 : 이규영 마르코 신부
 참가자 : 세례받은 성인 남녀 28명(참가비 17만원)
 신청 : 7월 6일 17시 까지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
 문의 : 성음악위원회 영성부 010-4527-5046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 7.3(금)~5(주일)
 효소단식 : 7.9(목)~12(일), 8.4(화)~7(금)
 성경완독 : 7.24(금)~8.1(토), 8.14(금)~22(토)
 문의 :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010-3340-0201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때 : 7월 31일(금) 14시~8월 2일(주일) 16시
 곳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 중학생이상 - 미혼남녀
 회비 : 15만원정 / 문의 : 010-5490-5345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피정

때 : 매월 마지막 주(토) 14시~(주일) 14시
 회비 : 2만원(청소년 무료) 1박2일(3식)
 곳 : 초정성령회관
 문의 : 043-213-9103/010-5482-6744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청주고속버스 터미널)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한라산순길 : 7.17~19 / 우도 : 7.24~26
 마라도 순례 : 7.3~5, 7.10~12, 8.21~23
 올레바닷길 : 9.17~19 / 역새길 : 10.14~16
 추자도 성지순례 : 9.4~7, 9.11~14
 10.31~11.3, 11.14~17, 11.26~29
 면형의 집 : 064-732-4702

성소모임

곤벤틀밭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때 : 매월 첫째주 주일 14시
 곳 : 서울 혜화동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
 문의 : 권정대 베드로 수사 신부 010-4344-1997

채용·모집·기타

양업고등학교 - 2026. 행복한 캠프

때 : 7월 17일~19일(2박 3일)
 곳 : 양업고(043-260-5076)
 대상 : 중학교 1~3학년
 접수 : 7월 7일 10시부터~(홈페이지 접수)
 비용 : 15만원 (접수완료 후 입금)

창세기 성서 그룹 공부 모임

때 : 매주 수요일 19시30분
 곳 : 교구청 303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4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3박4일
 문의 : 송진욱 신부 010-3645-9028

방문요양 어르신을 모십니다

딸내미장기요양기관
 대상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신청/문의 : 033-744-1552
 주소 : 원주시 치악로1735번길10 (개운동)

2026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

때 : 9월 4일~6일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강수근 신부 지도)
 참가비 : 30만원 / 문의 : 02-558-2004

성바로팔수도회 엄마와 딸 피정

때 : 7월 4일(토)~5일(주일)
 곳 : 대구 연하리 피정의 집
 대상 : 35세 미혼 딸과 어머니
 신청 : 6월 26일(금)까지 (선착순 10팀)
 문의 : 노엘라수녀 010-2609-0197
 인스타 @fsp.noela



봉산동 성당 사무장 모집 공고

자격 : PC가능자, 세례 받은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 이력서,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속 본당 신부 추천서
 접수 : 사무실 033-744-9220 또는
 bongsan0526@naver.com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p>안경매니저</p> <p>오피상(방지거), 서난희(아네스) 누친 다초점·하드렌즈 전문점 T.033-742-9901 행구동 SG 마트 T.033-742-9979 무실동 KB국민은행앞</p>	<p>여민한의원</p> <p>성태경(스테파노), 조성지(마리아나) 교통사고 / 추나요법 / 봉독약침 T.033-766-1075 봉산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1층</p>	<p>연세민내과 의원</p> <p>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국가암검진지정기관(위암·유방암·대장암 간담) 24시간 심전도검사 면역NK세포검사 간섭유전자검사(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86) 8시부터 검진 실시</p>	<p>친환경 원목가구 다심마루</p> <p>최인숙(마리아) 좌탁, 서랍장, 소파, 문갑, 식탁, 침대 황토석온열침대 온열소파 T.033-761-4994 유보라 마크 브릿지(관설동) 맞은편</p>	<p>더원 스크린 골프</p> <p>박세영(가브리엘), 이령(아네스) 프렌즈스크린 최신 클럽 설치 넓고 쾌적한 20개홀, 주차장 완비 T. 033-764-0101 원주시 서원대로 474. 3,4층</p>
<p>평화안마원</p> <p>원장 : 조귀철(토마스) 전신안마, 부분안마, 체형교정 발맞사지, 피로회복 T. 010-2000-1644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59-2 (명륜동 남부시장 세경아파트 정문 앞)</p>	<p>안나의집 요양원(배론)</p> <p>전성남(글라리아) 배론에서 입소어르신을 모십니다.(남/여) 공기좋은 배론에서 함께하세요 T.043-641-2007 / 010-9975-6429</p>	<p>변호사 최원환 법률사무소</p> <p>최원환(암브로시오), 신주연(글라리아) 민사 · 형사 · 가사 · 파산 및 회생 T.033-747-8872 무실동 신법원청사 옆</p>	<p>소용재활데이케어센터</p> <p>대표 : 권정숙 배아따(무실) 센터장 : 김규리 엘리자벳(구곡) 주간보호, 재활운동, 인지활동, 종일활동 T.033-761-7588 원주시 단구로 305 2층</p>	<p>에이스침대 원주 스퀘어 자코모 소파</p> <p>원이규(토마스), 권미향(스콜라스티카) T.033-743-9700 원주시북원로2362(단계동하이마트사거리)</p>